

프랑스 발레의 역사

-프랑스 발레의 선구자들-

역사

- 1.이탈리아에서의 유입-카트린느 드 메디치
- 2.루이 14세와 궁정 무용,발레학교
- 3.마리 카마르고
- 4.낭만주의 발레와 세대교체-여성 무용수의 진출

카트린느 드 메디치



- 발레는 원래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유래
- 카트린느 드 메디치가 프랑스로 시집오면서 전파
- *Le Ballet Comique de la Reine* (*The Queen's Ballet Comedy*)는 줄거리가 온전히 살아남은 최초의 발레작품

루이 14세



- 대단한 발레 애호가로, 프랑스 발레의 번영을 주도한 인물
- 직접 발레를 하는 파격적인 행보
- '태양왕' 이라는 칭호 역시 그가 발레 작품에서 맡은 역할에서 유래한 것
- 7세부터 직접 무용을 수련하며 최초의 직업무용수로도 꼽힘. 또한 1661년 왕립무용아카데미라는 발레학교의 효시인 무용예술원을 설립

마리 카마르고



- 여성 무용수의 의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인물.
- 굽 없는 시발을 신고 무대에 오름
- 기존의 풀 스커트를 걷어내고 다리를 들어 내어 움직임의 강조함
- 오늘날 무용복(튀튀)의 시초가 됨.

마리 카마르고의 무용복

치마를 걷어 올려 다리의 움직임이 보다 잘 보이도록 연출하였으며, 신발에 굽이 없어 여성 무용수의 동작이 자유로워짐

-원래 남자 무용수들은 무릎 길이의 의상을 입어 여성 무용수들에 비해 동작이 자유롭고 다양한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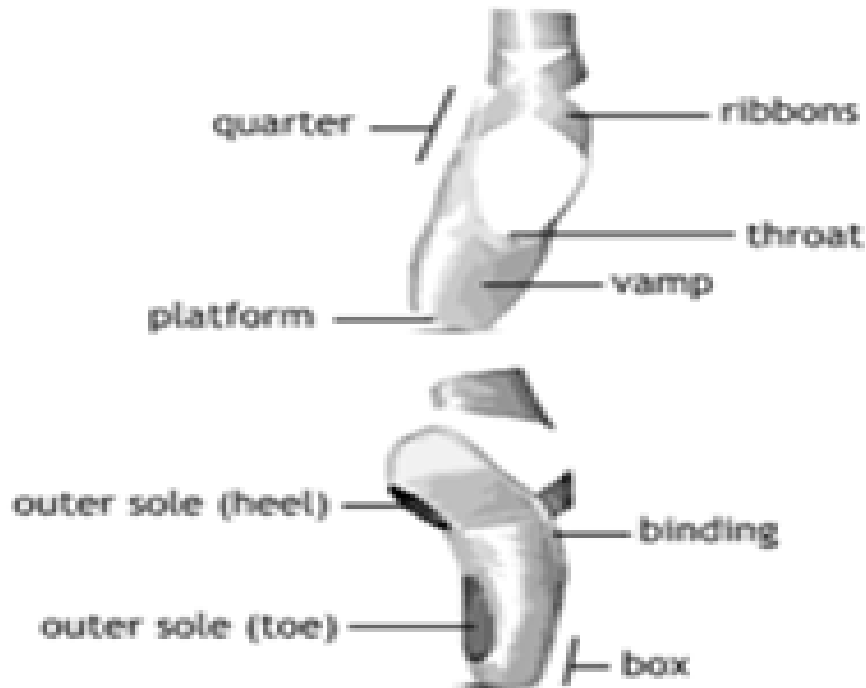
마리 카마르고의 시도는 성공적이었으며 큰 반향을 일으킴



낭만주의 발레의 의의



- 발레는 원래 남성 무용수들의 전유물이었음. 여성 역할은 가면 을 쓴 남자 무용수가 전담
- 낭만주의 시대를 맞이 하면 발레의 주류가 여성 무용수로 교체됨.
- 이 시기 발끝으로 춤 추는 테크닉이 수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짐



토 댄싱 테크닉과 토슈즈의 도입

낭만주의 발레의 가장 큰 산물.오늘날 발레의 가장 큰 테크닉으로 발전한 메소드.토슈즈는 여성 무용수들의 전유물

대표적인 작품은 오늘날까지 대작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'지젤'

시기별 양식 및 대표작

- 초기 궁정무용
- 사실주의 발레
- 낭만주의 발레
- 아카데미 오페라
- 행동발레

시기별 양식 및 대표작

- file:///C:\Users\User\Downloads\서명%20필터링%20양식.hwp

참고문헌

- - 김말복(1999),『무용의 이해』, 서울 : 예전사
- - 국립 국악 고등학교 교과서 『무용사』
- - 문애령(1995). 『서양무용사』 논장출판사
- - 박금지. 『무용론』 도서출판 금광
- - 최영숙 역. 『명작 발레 모음집』 도서출판 서울
- - 조병옥. 『프랑스 문화와 문화정책』 공주대학교 출판부